

하동 생태테마존 프로그램

- 자생식물관찰원
- 화개탐방안내소
- 쌍계사
- 설산습지
- 반달가슴곰생태학습장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환경교육	생태테마-Zone 프로그램		활동장소	생태테마-Zone
			소요시간	6시간
			참가대상	성인
			참가인원	20명/해설사2~3명
			작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동군 일원 점단위 명소를 연계한 면(面)단위 생태테마-Zone 구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지, 기가폰, 카메라, 패드 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하자. 자연에서 자유롭게 관찰 있도록 과도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개 및 인사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생태테마-Zone 소개 	2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생식물관찰원 화개탐방안내소 쌍계사 설산습지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320분 (식사시간 포함)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나누기, 마무리 인사 	20분		
시나리오	<p>[자생식물관찰원]</p> <p>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p> <p>여러분이 계신 이 곳은 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p>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크고 넓어서 면적이 무려 483km²에 이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483km²라는 넓이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리산의 면적은 146,107,500평이 됩니다. 정말 넓죠?

이 넓은 지리산에는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제일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1,915m에 이릅니다. 지리산은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산이기도 한데, 어리석은 자가 머물면 지혜로워 진다하여 지리산이라는 이름 외에도 백두산에서 산줄기가 뺏어 내려 천왕봉에서 맺혔다 하여 두류산이라고도 불리고, 매우 넓고 깊은 산이란 의미의 방장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리산은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으뜸입니다. 2019년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식물 2,080종과 동물 5,476종 등 모두 8,67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왕봉(1,915m), 노고단(1,507m), 제석봉(1,806m), 반야봉(1,732m) 등 44개의 봉우리와 칠선계곡, 피아골계곡, 뱀사골계곡, 대원사계곡 등 28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름 없는 봉우리와 계곡까지 더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습니다.

2014년에 조성된 멸종위기식물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생물종 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생태교육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형상화하고자 식물원 내 놓여있는 바위는 천왕봉과 노고단을 나타냅니다.

-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단단한 나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는 환웅이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고,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단수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달나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신단수와 단군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단’ 자는 박달나무를 뜻하는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박달나무는 건국시대부터 우리 겨레와 가까웠던 나무였기에 박달나무를 ‘배달겨레의 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달: 고대 한국을 지칭하는 말.)

박달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중 매우 단단한 편입니다. 재질이 치밀해서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를 자를 때 도끼날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다듬어질할 때 쓰는 흥두깨, 디딜방아의 절곳공이나 함지박(*함지박: 통나무의 안을 파내서 바가지 같이 만든 큰 그릇) 등을 만드는데 쓰이고, 정월놀이에 쓰는 옷은 박달나무 옷을 최고로 친답니다.

박달나무는 가지 끝에서 늘어지는 수꽃이삭과 위로 곧게 선 암꽃이삭이 함께 있는 암수한그루입니다. 어린 줄기의 나무껍질은 진한 자갈색을 띠고 광택이 있으며 가로로 긴 줄무늬의 껍질눈이 있습니다. 나무껍질이 오래되면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두꺼운 코르크질로 변하기 때문에 산불에도 잘 견딥니다.

- 벚나무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입니다. 5장의 오목한 꽃잎으로 구성된 꽃이 긴 꽃자루의 끝에 피며, 버찌를 열매로 맺습니다. 벚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벚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깁니다.

목재는 치밀하고 탄력이 있어 가구 및 건축물에 사용됩니다.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판의 60%이상은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활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벚나무 껍질을 앵피 또는 화피라고 하여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심겨있는 벚나무같은 경우에는 수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벚나무는 목재의 질이 연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후에 상처보호용 도포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잘려나간 부위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나무 속을 갉아 먹어 나중에는 나무 속이 비어 바람이 강하게 불 땀 나무가 쓰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화살나무

노박덩굴과의 낙엽관목으로 나뭇가지는 회색, 어린가지는 녹색입니다. 가지에는 네모진 모양, 코르크 형태의 날개가 2~4개 달려 있는데, 그 모양이 화살에 붙이는 날개 모양과 비슷해서 화살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가지를 화살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또, 날개가 달린 줄기가 머기를 빚는 참빗처럼 생겼다고 해서 참빗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화살나무의 코르크 줄기는 왜 있을까요? 화살나무는 숲에서 보면 나지막한 키에 새순이 맛있고 부드러워서 산토끼나 고라니 등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가지의 코르크 부분을 크게 만들어 동물들을 질리게 해서 잎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살나무는 5월에 잎겨드랑이에서 4개의 꽃잎이 있는 황녹색의 꽃이 2~5개 피웁니다. 10월에 잎이 붉게 단풍이 들며, 열매도 붉은색으로 익어 껍질이 벗겨지고 주홍색의 씨앗이 드러납니다.

- 산수국

산수국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에서 자라는 낙엽 관목입니다. 산골짜기나 돌무더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산수국의 꽃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보이는 꽃은 나비와 벌들을 유인하기 위한 장식꽃(암술과 수술이 없는 무성화)입니다. 장식꽃 안쪽에 보랏빛이 도는 푸른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암술과 수술을 가진 꽃이 진짜꽃입니다. 장식꽃들은 벌과 나비를 불러모으고 진짜꽃은 열매를 맺고 나면 초록빛으로 바뀌어 열매를 키우는 일에 매진한답니다.

- 할미꽃

할미꽃은 양지바른 곳의 토양이 중성화된 곳에서 서식합니다. 잎은 전체에 흰색털이 덮여 있어 흰빛이 돌지만 잎 표면은 짙은 녹색에 털이 없습니

다. 꽃은 검붉은 자주색인데, 꽃잎 겉 표면은 잔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열매는 약간 긴 계란형이고 겉에 긴 흰색 털로 덮여있습니다.

할미꽃 이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무척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옛날 두메산골에서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큰 손녀는 예쁘나 성질이 고약했고 작은 손녀는 인물이 변변치 않았으나 마음이 비단결 같이 곱고 정도 많았습니다. 때가 되어 큰 손녀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으로, 작은 손녀는 산 너머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간 손녀딸이 보고싶었던 할머니가 큰 손녀를 찾아갔으나 얼마 못 가서 쫓겨나고, 산 너머 사는 작은 손녀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어려운 살림에 짐이 될 것 같아 차마 가지 못하고 작은 손녀의 집이 보이는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작은 손녀가 그 자리에 할머니를 고이 물어드렸는데, 이듬해 봄부터 무덤가에 허리가 굽은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이 할머니의 넋이라 여겨 '할미꽃'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은 흰 털로 덮인 꽃대가 구부러져 있고 꽃이 진 후의 암술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백발의 노인을 닮았다고 해서 할미꽃이라 부른답니다. 한방에서는 할미꽃 뿌리를 백두옹(白頭翁)이라는 지사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엔 노랑할미꽃, 분홍할미꽃, 가는잎할미꽃 등 10여 종이 자생하며 모두 뿌리의 독성이 강합니다. 옛날에 봄부터 가을까지 할미꽃의 뿌리를 캐서 생으로나 삶은 물을 재래식 화장실에 뿌려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로 썼다고 합니다.

- 히어리

지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히어리는 3월 말에서 4월초에 8~12송이가 한 뭉치를 이루어 꽃대의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긴 꽃대에 포도송이처럼 띄엄띄엄 노란 꽃뭉치가 달린답니다. 히어리는 1910년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히어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15리'의 순천 사투리인 '시오리'에서 유래했습니다. 히어리 복원의 중심에 있었던 호남대 임동욱 교수는 히어리를 순천 지방 향명으로 '시오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시오리는 십리(4km)에 오리(2km)를 더한 약 6km 거리를 의미하는데, 골짜기를 따라 북사면에만 분포하는 히어리가 마치 시오리 간격마다 출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어리는 2005년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지리산 일대와 경기도 광교산 등 자생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2012년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산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산수유

이른 봄에 산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가 생강나무라면, 마을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 봄에는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차를 끓여 마시고 술을 담가 먹거나 씨앗을 발라내고 햇빛에 잘 말려서 한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산수유 몇 그루만 있으면 수확한

열매를 판 돈으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서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 주목

대부분 해발1,000m이상 되는 높은 산의 정상부근에서 자라는 주목은 세찬 바람 속에서도 줄기가 곧게 자랍니다. 나무껍질이 붉은 빛을 띠고 속살도 붉어서 붉을 주, 나무 목 자를 써서 '주목'이라고 합니다. 주목은 늘푸른바늘잎나무로 10m정도 높이로 자랍니다. 아주 더디게 자라지만 오래 살고 목재는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흔히 주목을 두고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고 하는데 나무 수명이 길고, 단단한 목재로 쓰이는 까닭에 마구 베어 쓰다 보니 이제는 아주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목의 목재는 바둑판이나 조각재 등으로 귀하게 사용되며 사무 모양이 보기 좋아 관상수로도 많이 심습니다.

- 개비자나무

늘푸른바늘잎나무. 따뜻한 곳을 좋아해 제주도와 전남의 바닷가 주변에서 주로 자랍니다. 열매 속의 씨앗을 '비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 이용했습니다. 또 씨앗으로 짠 기름은 먹기도 하고 머릿기름이나 등잔불 기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비자나무 목재는 결이 곱고 가공이 쉬워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을 하는데 이용되는 귀한 목재입니다. 비자나무 가지를 꺾으면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잎이 달린 가지를 잘라 태워 그 연기로 모기를 쫓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개비자나무는 원래 암수딴그루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암나무뿐이라면 스스로 수나무로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수꽃과 암꽃을 같이 피워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퍼뜨립니다.

- 마가목

마가목은 장미과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미과 식물들의 열매는 맛을 떠나서 식용이 가능합니다. 즉, 독성이 없습니다.

마가목이라는 이름은 새순이 말의 이빨처럼 튼실하게 나온다해서 마아목(馬牙木)이 변해서 마가목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가목은 낙엽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높이 8m 정도까지 자랍니다. 마가목은 산 중턱의 숲속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산의 정상 부근에서는 세찬 바람 때문에 떨기나무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마가목의 새순은 질기고 뻗뻗한 것이 다른 나무의 연약한 새순과 비교가 됩니다. 한방에서 마가목의 열매를 기침을 멈추거나 허약한 몸을 보하는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오래도록 매달려 있는 붉은 열매의 모습이 보기좋아 관상수로 많이 심습니다.

- 차나무

차나무는 키가 작은 떨기나무로 늘푸른나무이다. 줄기는 높이4~5m로 자라며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며 남부 지방의 산기슭에서는 저절로 자라기도 한다. 차나무 잎은 음료로 마시는 차의 원료

로 쓰이기 때문에 차나무라고 부릅니다. 차는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크게 녹차와 홍차로 나뉘는데, 어린잎을 따서 그대로 찌서 말린 것을 녹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녹차를 생산합니다. 특히, 하동 화개면은 차 시배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하동녹차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져 차의 명품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녹차는 녹색 음식의 대표로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나무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차나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지고 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여왕 이전부터 차나무를 들여와 차를 마셔 왔음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녹차의 분류는 찻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차, 곡우차, 입하차, 하차, 추차로 나누기도 하고, 찻잎의 크기에 따라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4번정도 잎을 따지만 대만에서는 15번, 인도에서는 30번이나 따다고 합니다.

- 기린초

기린초는 우리나라 전역의 바닷가 혹은 산지의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기린초는 건조한 환경에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서 주택에 자연석을 쌓아 조경을 할 때 틈새에 심어 가꾸는 등 암석정원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린초의 특성상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기 어려운 도로변이나 공원조경에도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린초의 줄기는 뿌리에서 많이 올라오며 아랫부분은 붉은색을, 윗부분에는 녹색을 띠니다. 잎은 줄기에 잎자루가 없이 바로 달리는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두껍습니다. 기린초의 꽃은 6~7월에 줄기 끝에서 피는데 노란색으로 작은 별모양의 꽃이 평편(平便)하게 모여서 달립니다.

그리고 기린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점모시나비’의 애벌레의 주된 먹이이기도 합니다.

- 소리쟁이

소리쟁이는 주로 모여 사는 특징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열매에 붙은 날개가 서로 부딪쳐서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소리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소리쟁이는 산성토양을 싫어하고 질소 유기물이 풍부한 부영양화(인이나 질소같이 영양염의 농도가 자연 상태일 때보다 높은 상태) 토양을 좋아하는 호질소성 지표식물이며, 뉘가 썩어가는 불결한 토지 환경에서 삽니다. 소리쟁이는 습한 곳이 적지이며 모래땅보다는 밭 흙이나 진흙이 섞인 땅이 부영양화 되면 소리쟁이가 살기에 최적 환경조건이 됩니다. 식물체가 1.5m 높이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뿌리가 지하 3m까지 깊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유암 홍만선이 기술한 「산림경제」에는 소리쟁이 토장국 맛을 소개한 기록이 있는데 “소 무릎뼈 꼭 고은 국물에 모시조개, 소리쟁이,

마늘을 넣고 끓이면 부드럽고 매끄러운 맛이 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채소가 귀하던 옛날에는 소리쟁이를 어두운 움에 심어두고 겨우내 싹을 수시로 베어 국을 끓여 먹었고 식량이 떨어지면 끼니를 대신한 구황식물의 역할도 했으며 말렸다가 묵나물로도 애용했다. 봄의 어린순은 데쳐 나물무침도 하고 국거리로도 이용한다.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수산이 함유되어 있어 날것은 피하고 끓는 물에 데쳐 조리한다.

- 가시오갈피

가시오갈피나무는 두릅나무과의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떨기나무입니다. 추위에 강하고 물빠짐이 좋은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가시오갈피는 인삼보다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이름도 시베리아의 인삼이란 뜻인 ‘시베리아 진생(Siberian ginseng)입니다.

가시오갈피는 한때 강원도에 넓은 군락을 이루던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오갈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자생하는 가시오갈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야생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만병초

만병초는 이름 그대로 만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만병초라 불리고, 실제로도 약용으로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만병초는 고무나무와 닮았고 꽃이 철쭉과 비슷한데, 천상초(天上草), 똑갈나무, 만년초, 풍엽, 석암엽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칠리향(七里香) 또는 향수(香樹)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태백산, 울릉도, 지리산, 설악산, 백두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천연 분포하는데, 대부분 하얀 꽃이 피지만 백두산에는 노란 꽃이 피는 노랑만병초가, 울릉도에는 붉은 꽃이 피는 홍만병초가 있습니다.

- 진달래

진달래는 낙엽이 지는 떨기나무입니다. 중국에서는 진달래는 ‘두견화’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죽은 촉나라 왕이 두견새가 되어 흘린 피눈물이 떨어져 핀 꽃이 진달래꽃 즉, 두견화라고 불립니다. 옛날에는 봄이면 아이들이 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먹었는데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 시큼한 맛은 꽃에 들어 있는 비타민C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찹쌀가루 박죽에 진달래꽃을 얹은 화전을 지져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서 ‘참꽃’이라고 했습니다.

진달래하면 떠오르는 비슷한 꽃이 있죠? 바로 철쭉입니다. 철쭉의 한자 이름은 '척촉'인데, 철쭉 척, 머뭇거릴 촉 자를 씁니다. 척촉은 철쭉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걸음을 머뭇거린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말 이름인 철쭉도 이 한자 발음에서 변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리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진달래, 철쭉, 산철쭉을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

면 바로 진달래는 먹을 수 있고, 철쭉이나 산철쭉은 먹을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먹지 못해서 '개꽃'이라고 불립니다. 진달래에는 비타민C 성분이 들어있고 철쭉은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잎을 보면, 진달래와 산철쭉은 잎 모양이 긴타원형으로 비슷합니다. 철쭉은 잎이 거꾸로된 달걀형으로 넓습니다. 나뭇가지로 보면, 진달래나 산철쭉은 소지(어린가지)가 적갈색이고, 철쭉은 회백색입니다. 진달래와 또 다른 점은 철쭉, 산철쭉은 꽃받침과 겨울눈을 비벼 보면 끈끈한 액체가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어린 새순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는 벌레들은 이 점액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다시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늘푸른바늘잎나무로 높이 15m정도까지 자랍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소중한 특산종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의 높은 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데 특히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가장 많이 자랍니다. '구상나무'라는 이름은 제주도에서 부르는 '쿠실낭'에서 유래했으며 촘촘한 잎가지가 쿠살(성계)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계나무'란 뜻입니다.

분비나무와 비슷해서 헛갈릴 수 있는데, 분비나무나 구상나무 모두 솔방울이 하늘 방향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구상나무는 솔방울 열매 표면의 포조각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 특징이고, 분비나무는 포조각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곧습니다.

- 갯버들

갯버들은 낙엽이 지는 떨기나무로 뿌리 부근에서 많은 가지가 올라와 높이 2m 정도로 비스듬히 자랍니다. 갯버들은 '개울가에서 자라는 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천의 상류와 같이 물 흐름이 빠른 곳의 물가에도 자랍니다. 유속에 따라 입지가 불안정한 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게 자라지 않는 대신 가지에 탄력을 더하여 세찬 물살에도 부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아(새로 돋아나는 싹)를 많이 만들어 침수 시에도 기공을 통한 호흡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봄이 오면 갯버들은 가지마다 솜털을 뒤집어쓴 꽃이삭을 내미는데 흔히 '버들강아지' 또는 '버들개지' 라고 부릅니다. 버들강아지는 산골짜기에서 봄이 온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봄의 전령사 노릇을 합니다. 갯버들 가지에 물이 잔뜩 오르면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굽기의 가지를 자른 다음에 틀어서 벗겨 낸 대롱모양의 껍질로 버들피리를 만들어 부는데 이것을 흔히 '호드기'라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교목과 관목을 합쳐 100여종에 달하며 우리나라도 수양버들, 능수버들, 왕버들, 갯버들, 키버들, 호랑버들, 용버들 등 30여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들이라는 단어는 박상진교수(경북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부들부들'하다는 나무가지의 특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설화, 그리고 민속과 문학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생태적으로는 버드나무는 특히 우물가에 많이 심었는데 이는 버드나무가 물의 정수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안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버드나무의 잔뿌리는 물에 녹아있는 질산태 질소와 인산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버드나무의 속명인 라틴어 살릭스(Salix)는 ‘가깝다’는 뜻의 ‘살(sal)’과 ‘물’이라는 뜻인 ‘리스(lis)’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우물가나 하천가의 버드나무는 이와 같은 원래의 생태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뿌리는 토양 속에 공간을 만들어 물속 토양 생물의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버드나무 추출물에는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만드는 성분이 있어 지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자생식물관찰원이 할 일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종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갈수록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생물종 멸종이 가속화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서식지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원을 통해서 자생식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전방안 마련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곳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개탐방안내소]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탐방안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 하동 탐방안내소를 둘러보시며 지리산과 하동, 자연과 역사가 함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품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 화개탐방안내소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곳 화개탐방안내소는 대한민국 알프스라 불리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탐방안내소 형상은 운상원(雲上院)을 모티브로하여 구름 위로 솟은 건물을 연상하고 일사광선을 차단하는 기존 징크 벽체를 구름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지붕의 디자인은 지리산의 주능선을 표현하였습니다.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둘러보실 전시실은 1, 2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며, 1층은 지리산과 하동 그리고 교육장이 있으며 2층은 지리산 속 이상향의 역사와 자연이 있으며 특별전시관에 지리산의 옛지도가 전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시실로 들어가겠습니다.

- 지리산 종주능선, 하동의 별천지 길

이모형은 지리산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 진다는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리산에는 1,500m 넘는 15개 이상의 봉우리와 1,000m가 넘는 20여개의 봉우리 등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뒤섞여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넓은 품

처럼 포근한 모습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천왕봉에서 서쪽의 노고단에 이르는 25.5km의 주능선이 동서로 솟아 있으며 우리나라 육상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원지가 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산이 바로 강의 기원이고 즉 인류문명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북사면은 남사면 보다 눈이 오랫동안 얼어 있고 봄철에도 수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식생분포로 우리나라 3대 계곡의 하나인 칠선계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한 산으로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 정보 검색기는 현재 우리가 있는 하동에서 올라가는 등산코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 보이는 정보검색기는 하동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하동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동의 별천지길 안내가 되었습니다.

별천지 길은 고운 최치원의 호중별유천이라는 시구에 있는 향아리속 별천지에서 따온 말로 속세와는 달리 경치나 분위기가 아주 좋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그 속에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총 여덟 개의 길이 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경리 토지길

총 31km로 <토지> 실제 배경이 되었던 평사리를 지나 1코스 16km와 19번 국도를 따라 꽃길을 걷는 2코스 13km로 나뉘집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섬진강이 보이는 것은 물론 곳곳에 <토지>와 녹차에 얽힌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 걷는 동안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벚꽃이 필무렵에 가면 멋진 화개길 벚꽃이 기다립니다.

-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벚꽃과 매화꽃의 아름다운 풍광, 청정하천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섬진강100리 테마로드길'은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익숙한 선진강변에 친환경 생태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과 휴게쉼터, 전망공간과 수변 산책로, 도보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이순신 백의종군로 탐방로

백의종군로로란 이순신 장군이 벼슬을 박탈당한 뒤 서울 의금부에 투옥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되어 백의종군 하기 위해 권을 도원수 진영(합천)으로 가던 길을 말합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흰옷을 입은 채 생활한다고 해서 백의종군이라 부릅니다. 백의종군로는 한성~아산~순천~구례~하동~진주~산청~합천~진주(초계)~하동~구례로 이어집니다.

- 심리벚꽃길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 즐기따라 수려한 산수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숨쉬는 화개장터 일원에서 4월 초에 벚꽃축제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의 시오리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100선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뤄지고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해서 '흔레길'이라고도 불립니다.

- 서산대사 옛길

서산대사는 조선중기(1520 ~ 1604)의 고승·승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으며, 유(儒)·불(佛)·도(道)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 삼교통합론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화엄등 일대는 서산대사가 불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을 얻어 출가한 곳입니다. 서산대사 옛길은 지리산 대성계곡을 따라 걷는 코스로, 옛길의 자취가 잘 보존 되어 있고 군데군데 적당한 쉼터와 기암괴석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 회남재 숲길

회남(回南)재는 경의사상(敬義思想)을 실천한 조선시대 선비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 선생이 산청 덕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악양이 명승지라는 말을 듣고 1560년경 이곳을 찾았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고갯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하동시장을 연결하는 산업 활동 통로이자 산청·함양 등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던 소통의 길이었으며, 지금은 주변의 뛰어난 풍광을 즐기며 등산과 트레킹을 하는 동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 지리산둘레길

지리산길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21개 읍·면 120여개 마을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입니다.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환(環)형으로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 입청학동방 최고운

올라오시며 보이는 시는 「입청학동방최고운(入靑鶴洞訪崔孤雲)」으로서 조선 전기 고봉 기대승[1527~1572]이 지리산[1,915m]을 유람하면서 쌍계사(雙溪寺)에 들러 최치원(崔致遠)[857~915]의 영정이 있는 곳을 찾아가 최치원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2층은 이상향의 하동의 역사와 자연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고운천재인(孤雲千載人)[고운 선생은 천 년 전에 나시던 분]
연형이기학(鍊形已騎鶴)[신선술 단련하여 학을 타고 떠났지]
쌍계공구적(雙溪空舊蹟)[쌍계사에 부질없이 옛 자취 남아 있고]

- 이상향이란? 청학동

이상향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저마다 삶이 다르듯이 각자의 이상향도 다를 것입니다. 이상향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의 세계입니다. 유토피아, 무릉도원, 우복동 등 많은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곳은 청학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학동 하면 많은 분들이 한복입고 샷갓 쓰고 생활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는데 과거 지리산에 청학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현재의 청학동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불일폭포 부근, 세석평전, 청학이골(악양면 등촌리 위쪽), 상덕평마을(선비샘 아래) 등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리산 곳곳이 청학동인 셈이었습니다.

경남 하동은 고려시대부터 청학동에 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 했다합니다.

- 최치원-쌍계석문, 불일폭포

지리산유람록에서 청학동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현재도 옛 풍광이 남아있는 쌍계사 뒤편의 불일폭포와 불일암 일원입니다. 이곳에는 청학봉(靑鶴峰), 백학봉(白鶴峰), 학연(鶴淵)과 같은 지명이 있고, 주변에는 최치원이 썼다고 전해지는 환학대(喚鶴臺) 석각과 완폭대(翫瀑臺) 석각 등 최치원 설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치원이 약 1,200년 전에 썼다고 전해지는 완폭대 석각을 2016년 4월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발견하여 청학동과 최치원의 설화가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50여편의 지리산 유람록은 크게 천왕봉 코스와 쌍계사 코스로 유람길이 나뉘었는데,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 쌍계사가 반드시 가봐야 할 장소가 되었던 것은 승경(勝景), 탈속(脫俗)공간, 최치원 유허지(遺墟地) 등의 여러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상향인 청학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청학동과 최치원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면에서 최치원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유적을 남긴 쌍계사를 청학동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쌍계사 입구에는 최치원이 썼다고 전해지는 쌍계석문(雙磎石門) 석각이 있고, 경내에는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가 있으며, 청학을 이름으로 정한 청학루가 있습니다.

- 덕평 의신

김택솔-두류산유록

1934년에 지리산을 유람한 김택솔(1884 ~ 1954년)의 글에서 청학동 행정이 세석과 덕평등지가 해당 된다 나와 있습니다.

- 신흥사

신흥사가 있었던 신흥마을 일원(화개계곡의 의신-범왕 갈림길 부근)은 미지의 청학동을 찾아서 또는 당시에 청학동으로 인식했던 불일폭포와 불일암, 그리고 쌍계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며가며 들렀던 곳으로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이곳을 청학동 또는 청학동에 비견할만한 곳으로 묘사한 글이 많다. 또한 삼신동(三神洞)과 세이암(洗耳嶽) 석각, 푸조나무 고목 등 최치원 설화의 흔적이 있어 이곳을 청학동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 세석평전

세석평전은 일부 유람록에서 이곳의 지형이 새의 두 날개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형상이어서 청도동(靑嶋洞)이라 했고, 최치원의 유적이 있으며(현재까지 찾지 못함), 청학연못이라는 물웅덩이와 학동임(鶴洞壬)이라는 석각이 있어 이곳을 청학동의 한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세석평전의 청학연못과 음양수 주변에는 집터와 밭터, 돌확 등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 이곳을 세상과 동떨어진, 물과 농작물이 풍부한 '피난처'로서의 청학동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 도인촌 삼성궁

지금의 청학동을 도인촌이라 합니다. 지리산 삼신봉(1,284m)의 동쪽 기슭 해발고도 800m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예로부터 천석(泉石)이 아름답고 청학이 서식하는 승경(勝景)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청학동 주민 전체가 갱정유도를 신봉한다고 합니다.

일명 일심교(一心敎)라고도 하는 이 신흥종교는 집단생활을 하는 이들의 가옥은 한국 전래의 초가집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생활도 전통적인 한복차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남녀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땅아 늘어뜨리며, 성인 남자는 갓을 쓰고 도포(道袍)를 입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마을 서당에 보냅니다.

- 삼성궁

지리산 자락 청학동 도인촌 옆인데 15년 전 한풀선사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루에 약 20톤의 돌을 지어날라 탐을 쌓고 터를 잡은 곳이라 합니다. 이곳은 그 아득한 역사 시작인 고조선의 계율을 따르고 있으며 한배임(桓因), 한배웅(桓雄), 한배검(檀君)등 건국시조와 역대 왕조의 태조, 각 성씨의 시조, 현인, 무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돌탐은 솟대라고 하는데 대략 50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 매계마을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하동 악양(岳陽)면 매계리를 청학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양의 주산 형제봉 아래 작은 주산격인 매계리 뒷산(수리봉)에 오르면 그 이름처럼 독수리(매)가 내려다 보듯이 악양이 한눈에 보입니다. 매계는 산이 빼어나고 물이 좋아 예로부터 이상향이라 불리운 청학동(靑鶴洞)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며, 원래 이름은 '맷골'이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구자골 계곡물이 논밭을 적시며, 봄이면 매화꽃이 만발해 매계동천(梅溪洞天)이라고도 합니다.

- 김윤겸, 영남기해화첩

조선 후기의 화가인 김윤겸이 제작한 화첩입니다. 김윤겸은 본래 서울 출신이나 1770년에 경상도 진주 근처의 소촌(召村)에서 찰방(察訪)으로 부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본 화첩에 그려진 실경이 주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부산, 동래 지역 등 영남 전역을 포괄하고 있어 김윤겸이 소촌에서 근무하던 1770년 즈음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화첩 설명

<영남기행화첩>은 주로 부산, 경남 일대의 지역의 경승을 그린 14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으나 조선후기 선비들의 여행과 시문서화 예술의 창작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영남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14폭의 작품을 남겨, 지방자치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작품 자체로도 김윤겸의 회화를 대표할 만한 높은 수준으로, 비록 원래화첩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 결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태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 지리전면도(智異全面圖) - 지리산 전경

금대암(金臺庵)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모습이며 금대암은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사찰로 천왕봉에서 이어지는 지리산 북쪽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인데 화가는 자연스러운 부감시로 지리산의 능선과 칠선계곡의 물길을 굽이굽이 묘사하였고 넘실대듯 이어진 부드러운 봉우리는 토산(土山)의 특징이며 계곡을 따라 숨은 듯 작게 묘사한 마을은 지리산의 거대한 규모를 강조합니다.

지리산은 명성에 비해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에서 널리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그림은 김윤겸이 진주의 소촌역(召村驛) 찰방을 지낼 때 영남의 곳곳을 사색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는 16세기 후반~19세기 초 궁중화원으로 이름을 떨친 이인문(李寅文, 1745~1621)이 그린 것으로 총 길이 8.5m에 달하는 긴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이인문은 38년 동안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을 지냈고 1795·1796·1799년 세 차례 연행(燕行)을 통해 축적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화법(畫法)을 절충해 산수·인물·화조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다수 남겼습니다.

참고

이 그림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전통적 화제(畫題)인 ‘강산무진(江山無盡)’을 주제로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풍광을 묘사한 산수화이다. 실제로 존재한 산수가 아닌 웅장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세상을 묘사한 관념적인 산수를 그린 것으로, 넓은 평원구도에서 시작하다가 우뚝 솟아오른 절벽이 보이는 전반부와 협준한 산세가 중첩되어 광활하게 그려진 중반

부, 그리고 다시 잔잔한 평원으로 연결되는 구성은 심사정(沈師正, 1707 ~ 1769)의 <촉잔도(蜀棧圖)>(1768년)와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는 한국회화사에서 보기 드문 장권(長卷)의 산수화로서 이인문의 높은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광활한 산수 표현과 정교하고 뛰어난 세부 묘사가 일관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안중식,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

참고

안중식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과 글씨에 뛰어난 선비 출신의 화가로 호는 심전(心田), 경묵도인(耕墨道人), 불불옹(不不翁)이다. 조석진(趙錫晉)과 함께 장승업(張承業) 밑에서 그림을 배웠다. 또한 조석진과 함께 왕의 초상화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 조선 말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최초의 근대미술학교 서화미술회(書?美術會)에서도 함께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들 문하에서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대표적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이 그림의 화면 위쪽에 적힌 "을묘년 늦은 봄 심전 안중식(時乙卯暮春心田安中植)"라는 글을 통해 1915년, 즉 안중식의 만년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진대(晉代)의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바탕으로 한 '무릉도원(武陵桃源)'을 그린 것으로, 무릉(武陵)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 복숭아꽃이 만발한 별천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다. 고사의 내용에 걸맞게 높은 산세와 기이하고 복잡한 산수의 모습을 녹색과 분홍색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이상향을 만들어냈다. 이 그림에서 별천지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광물성의 녹색을 화면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곳곳에 분홍색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출했고, 섬세한 필치로 경물을 묘사하여 수준 높은 청록산수화를 완성시켰다. 피마준과 태점으로 산맥 윤기를 꼼꼼히 표현하고 다양한 형상의 나무들은 가는 붓으로 상세하게 표현했다. 이 그림과 같이 화면 가득히 경물을 복잡하게 배치하고, 산맥이 열리고 닫힘의 반복을 보이는 방식의 산맥 표현인 용맥(龍脈) 방식으로 산을 표현하였으며, 감각적이고 화려하게 채색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장승업을 중심으로 한 화가들이 제작한 사왕화풍(四王畫風)의 산수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장식적 성향이 짙은 면모는 청말 상해지역 사왕화풍의 특징과 유사하다.

- 토산 지리산

지리산에는 왜 나무들이 많고 계곡에 물이 많을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이증환 선생님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우리나라의 산들을 크게 석산(돌산)과 토산(흙산)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남한 제일의 산인 이곳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설악산이나 금강산은 석산이구요.

지리산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편마암(약 40%)인데 수억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다시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바뀐 것 입니다. 가장 흔한 암석으로 산 곳곳이나 주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마암은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을 맞고 잘게 부수어져 영양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전 사면에 식생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특히 편마암이 풍화되어 만든 토양은 입자가 작고 미세하여 물을 지니고 있는 능력(보수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흙과 나무들이 물을 지니고 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녹색댐의 역할을 해 지리산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 지리산의 동물과 식물

물도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1급수 물이란 바로 물의 맑고 깨끗함의 정도를 나눈 등급 기준입니다. 지리산은 1급수라 할수 있습니다.

생물들로 버들치, 열목어, 가재 등이 살고 있으면 1급수 이구요, 피라미, 갈겨니, 돌고기, 참마자등이 살고 있으면 2급수, 붕어, 잉어, 메기, 미꾸라지 등이 보이면 3급수 실지렁이가 보인다면 4급수입니다.

(뒤편) 지리산 동물 과 조류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크고 넓어서 면적이 무려 483km²에 이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으뎀입니다. 2019년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식물 2,086종과 동물 5,416종 등 모두 8,67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멸종위기 동식물도 지리산에 있는데, 여기서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으로 정부가 적극적인보호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동물로는 반달가슴곰 수달 조류는 등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동물에 담비, 삿, 하늘다람쥐등이 있습니다.

- 지리산의 폭포

지리산의 폭포는 이름만 붙여진 것만 28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 붙여지지 않은 곳도 수십 개가 되고요.

그중 단연 으뜸은 지리 10경에도 들어가 있는 하동 불일폭포가 아닐까 합니다.

불일폭포는 높이 60M로 우리나라 폭포 중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쌍계사에서 불일폭포는 2.4Km로의 거리로 고운 최치원 선생이 청학을 불러 타고 다녔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바위 환학대, 9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불일평전, 불일보조국사 지눌의 시호를 딴 불일암, 또 2016년 4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견한 고운 최치원이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완폭대

등이 불일폭포로 가는 탐방로에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 하동 십리 벚꽃길

하동하면 벚꽃이죠. 하동의 벚꽃을 표현한 곳입니다.

벚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끄는 것은 봄에 피는 화려한 꽃 때문에 관광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여름철 무성한 잎으로 햇빛 차단 등에도 효과가 있어서 인기도 있지만, 공해에 강하여 자동차의 매연 등 공해가 심한 도심의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벚나무는 자생력이 아주 뛰어난 나무입니다. 팔만대장경판의 반 이상이 벚나무 재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력 무기인 각궁을 만들 때 벚나무 껍질로 겹면을 감아 마무리를 했고, 또한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함경 지방에선 초가 대신 벚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드는데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여간해선 벗겨지지 않는 탁월한 응집력에 김구가 감탄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천왕봉을 포함한 지리10경이 있듯이 하동도 10경이 있습니다.

사진은 하동 10경을 걸어 놓았습니다.

- 지리산의 옛지도

과거나 현재나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에 으뜸 되는 산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지리산이 조선후기에 백두산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산으로 인식되었던 증거가 이 옛지도들에 나타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기록들을 보면 지리산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 명산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산하면 전통적인 이상향으로서 청학동이 유명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은 이상향의 장소 이미지를 지닌 상상의 곳이죠. 청학동이 조선시대의 지도에 표기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의식에서 지리산의 대표 경관으로서 장소적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옛 지도에서 청학동 위치는 지금 아는 것과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날 청학동이라고 하면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사상 청학동은 달랐습니다. 고려 후기 이후로 구전에 의해 전승된 청학동이라 불린 곳은 지금의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와 용강리 특히 불일평전·불일암·불일폭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라 나와 있으며 이곳이 청학동으로 알려지면서 조선후기나 20세기 전반까지도 문헌과 고지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청학동의 공간 범위는 인근의 의신, 덕평, 세석, 매계(악양) 등으로 확장되며, 다른 지방에도 청학동과 같은 지명이 생겨나서 구한말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45곳의 청학동 지명이 나타났습니다.

- 회화식지도

회화식 지도는 지도가 표현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산수의 생김새나 자연환경을 산수화 기법으로 묘사하여 그 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화식 지도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며, 축척식 지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의 전체적 분위기나 인상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조선 후기 지도제작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도 제작표현 방식입니다.

- 체험활동

*영상실

이 곳은 하동 소개와 지리산 깃대종 영상이 있는 영상실이며, 또 체험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영상 상영시간은 00분입니다.

*VR체험

지리산 주요봉우리와 천왕봉(1,915m), 노고단(1,507m), 아래봉, 피아골을 잠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및 정리

이것으로 탐방안내소의 지리산과 하동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안내소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며 편안히 쉬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탐방안내소를 둘러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쌍계사]

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000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립공원은 어떤 곳 인지? 또 지리산이란 어떤 곳인지? 쌍계사라는 사찰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리산 쌍계사 속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역사의 반열로 오르소서~!!!

제가 조금 전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문화, 역사, 경관 자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나 있을 까요? ~네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화의 보고인 경주국립공원을 저희 공단이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지리산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출발하도록 할까요? 지리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보존의 가치와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악형국립공원으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3개도(경남, 전남, 전북)와 1개시 그리고 4개 군을 포함하고 있어 무려 471.758km²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여의도 크기의 56배정도의 넓이와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네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공원의 크기는? ~네 제일 크다 입니다.(산악형 국립공원 중에서)

- 쌍계사의 유래

- 우리나라 차(茶)의 시배지 쌍계사

쌍계사의 유래는 신라 성덕왕 22년 서기 723년에 당나라에서 혜능 스님의 정상(頂相·머리)을 모시고 와서 작은 절을 짓고 봉안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뒤 문성왕2년 서기 840년에 진감국사께서 이곳에 대가람을 중창하여 옥천사라 하였으나, 이웃 전라남도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어, 정강왕때 절 입구에 두 계곡이 흐른다 하여 쌍계사라 이름 지었으며, 임진왜란으로 크게 소실된 것을 인조10년 서기1632년에 벽암스님이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쌍계사에는 국보 1점, 보물 6점, 시도형문화제 13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개 쌍계사 하면 녹차(茶)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쌍계사 주변이 우리나라 차(茶) 시배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5월이면 쌍계사 일원에서는 ‘야생차 문화축제’를 열어 녹차의 우수성과 쌍계사 주변이 녹차의 시배지임을 알리고 녹차의 대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828년(흥덕왕 3년) 김대렴(金大簾)에 의해 최초로 심어져 쌍계사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녹차시배지에 얽힌 일화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지금의 방장스님이신 고산스님께서 쌍계사 주지로 처음 왔을 때 이곳은 염소와 소의 방목으로 녹차시배지가 거의 고사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시배지를 복원시키기 위해 화개면 전 고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뽕짚과 된장을 얻어 삼년간 복원 끝에 원래의 모습을 찾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녹차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상품화 하여 오늘의 시배지와 하동녹차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직접 현장을 체험하시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속으로 빠져 보실까요?

- 일주문의 역할과 지리산 이름의 유래

- 전통 지붕양식 설명과 금강문 설명

- 수미산 종턱 동, 서, 남, 북을 지키는 사천왕

사찰입구에 만나는 첫 번째 문으로 속세와 경계가 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청와대 방문시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차검색대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사찰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일주문의 현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삼신산 쌍계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쌍계사라고 쓰여 있지 않고 왜 삼신산 쌍계사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럼 지리산의 여러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이란 말은 지혜로운 이인(異人) 많다고 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한글로 표기 할 때는 지리산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는 지혜로울 지(智)자와 다를 이(異)자를 사용해 智異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이 여기까지 흘러 왔다고 하여 두류산(頭流山), 그리고 먼 옛날 중국에서 동방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3개의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삼신산(三神山)이라고 불렀는데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판에 쓰인 삼신산(三神山)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하여 불복산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의 아픔이 어린 반역산 정말 다양하고 아픔과 역사가 묻어나는 이름들이죠. 지리산에 오셨으니 이름 몇 가지 정도는 꼭 머릿속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문은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 있는 문으로 두 분의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통 지붕양식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잠시 위 지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일주문 지붕도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죠? 일주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네 한문의 여덟 팔(八)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팔작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강문의 지붕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지붕의 앞면과 뒷면을 마치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배를 맞댄 모양을 하고 있어 '뱃집지붕'이라고도 하지만 맞배지붕이라 불립니다. 그 외에도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데 이를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자~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불교의 수문장인 금강역사가 있는데 두 분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불교용어를 범어라 하는데 아, 흠의 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성과 통일,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이 무슨 뜻일까요? 금강은 쇠 중에 가장 강한 쇠를 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이문을 통과 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꺾이지 않게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네 분을 사천왕이라 하는데 옛날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을 수호하는 분이 지국천왕이며, 남쪽을 수호하는 분이 증장천왕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지키는 분을 광목천왕, 북쪽을 수호하는 분을 다문천왕이라 합니다. 이분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의 감정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천왕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천왕 옆에 가서 한번 서 보세요. 저는 재복과 복덕을 관장

하는 신으로서 겨울을 관장하는 신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신이 되어 미움과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슴속 모든 아픔과 근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구층석탑의 역할, 불탑의 유래

- 불탑과 함께한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 구층석탑의 층수를 세어보기

사찰에 가면 가는 곳 마다 탑이 있죠?

탑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탑은 불탑(참고자료 6)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사리(참고 7)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계시므로 탑 속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늘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많은 불교 유물들이 우리 문화를 대변하고 있지만 특히 불탑은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과 음양오행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탑의 층수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탑들이 홀수로 만들어 진 것으로 시작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양의 수를 길하며, 복되고 아주 좋은 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탑의 층수와 의미를 살펴보면 3층은 천·지·인 삼재를 나타내고 있고, 5층은 음양오행, 7층은 복두칠성, 9층은 양의 완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구천(九天), 99칸집,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탑의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 10층 짝수를 선택한 탑도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석탑, 경천사 10층석탑등입니다. 그러나 이 탑도 1층~3층과 4층~10층을 구분하고 있어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 했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탑은 구층석탑인데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아닙니다. 주지스님께서 스리랑카 성지순례 중 탑의 양식이 맘에 들어 쌍계사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넣고 탑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탑이 몇 층일까요? ~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탑의 층수를 세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탑은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3부분으로 나눕니다. 저기 보이는 저 부분을 기단부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층수를 셀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기 보이는 저 곳부터 탑신부라 하는데 탑신부부터 층수를 세어 가면 됩니다. 세어가다 보면 저기 위에 부분이 나오는데 저기부터를 상륜부라 하여 탑의 층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탑신부 만이 탑의 층수에 포함 됩니다. 그래서 이탑은 9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탑이라도 층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십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그 다보탑은 몇 층일까요? 조금 어렵죠? 3층탑입니다. 다보탑처럼 층수를 세기 어렵거나 복잡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 탑들이 있는데 이를 이형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형탑

외에도 2단 기간을 사용하는 탐들이 있어 층수를 세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탐이 대부분 홀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층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탐은 탐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원을 빌면서 탐을 한바퀴 돌겠습니다. 꼭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사찰에 숲이 울창한 이유

- 배롱나무와 석산이야기

여러분 쌍계사 뿐만 아니라 사찰에 가면 숲이 울창한데 한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찰주변의 숲이 아름다운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첫번째는 조선시대 조세제도가 매우 엄격할때에 지금과는 달리 사찰에서도 나라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사찰주변에서 그 재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승려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 나무에서 목재를 만들어 팔고, 열매를 채취하여 기름이나, 식용으로 팔아 납세의무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화재예방을 위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사찰 주변에는 왁스층이 발달한 상록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찰주변에 비자림이나 동백림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낙엽활엽수에 비해 화재에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록 상록수는 화재자연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찰을 짓는 목재나, 주변 정원수로 많이 심게 되었답니다.

세번째 수행스님들과 속세 민간인들과의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수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변에 숲을 만들어 사찰의 공간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쌍계사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이는 풀을 석산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꽃과 잎이 따로 나기 때문에 9~10월에 오시면 빨간 꽃을 보실 수 있고 평소에는 잎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화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사화는 6~8월에 개화하며 꽃의 색깔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잎이 없이 꽃만 피는 것이 평생 혼자인 스님과 비슷하다고 하여 절에 심었다고 하나 다른 쓰임세도 아주 많은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낸 즙을 물감에 풀어 탕화를 그리기도 하고 전분을 채취하여 종이를 서로 붙이거나 책을 엮는 풀로 이용하였는데, 살균력이 있어 이 풀을 사용한 한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좀이 슬지 않아 불경을 인쇄 하거나 책을 만드는 사찰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 불교가 처음 시작된 인도에서는 지상의 마지막 잎까지 말라 없어진 곳에서 화려한 영광의 꽃을 피운다하여 피안화라고도 하며 묘지 근처에 많이 있기도 하여 지옥의 꽃, 죽은 이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 사찰에 석산이 많은 이유는 출가한 스님을 연모하다 상사병에 걸려죽은 여인이 꽃으로 피어났기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 배롱나무

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

꽃이 백일동안 간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며 간지럼나무, 수피가 미

고렵다고 하여 원숭이 미끄럼나무, 자미꽃등으로 불립니다. 간지럼나무는 수피가 얇아 사람이 수피를 간지럽히면 가지가 흔들린다하여, 원숭이도 미끄러질 정도로 수피가 미끄럽다하여, 원숭이 미끄럼나무,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사랑을 나눈 자미성에 이 꽃이 많이 있었다 하여 자미꽃 이름에 얽힌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외 쌀밥나무라는 말도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우리 선조들은 배롱나무가 세 번 피고 지면 쌀밥을 먹는다하여 쌀밥나무라고도 하였답니다. 이 배롱나무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배롱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껍질은 얇지만 수피가 단단해 세공품, 고급가구,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약효로는 가지를 끊어 마시면 방광염, 잇은 이질, 습진, 꽃은 산후출혈치료, 뿌리는 어린이들의 백일해와 기침, 여성의 불임증에 좋고 지혈작용을 한다네요.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나무이지요.

그런데 혹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꽃은 백일동안이나 피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는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에 꽃 봉우리가 20개 정도 달려 있어 그것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피고지고를 계속 하다 보니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공부하는 자세를 일깨우라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 불교음악(梵唄)의 교육장

이곳은 우리나라 불교 음악의 창시자인 진감선사가 섬진강에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울로써 어산(魚山)범패를 작곡했다고 하며 팔영루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팔영루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중섭이라는 스님이 팔영루를 중창후 인근 고성에 은거 중인 선비 관포어득강이란 선비에게 팔영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8곳을 읊게하고 이를 판에 새겨 팔영루라는 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팔영루에서 바라본 8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팔영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 8곳을 선정하세요. 잠시후 발표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범패의 명인을 교육시켰던 교육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범패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범패라 합니다. 지금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사월초팔일 등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곳에서 불교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팔영루에서 보는 섬진강의 은빛 모래알과,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는 전경이 눈앞에 항상 펼쳐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사찰의 유래와 선방의 변천사

- 스님들의 수행생활경력은 이력

저기 저곳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선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

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선방에서 사찰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는 중생제도 수양을 위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는 비가 계속내리는 우기가 있어 비를 피하기 위하여 풀과 나무 그리고 벌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외출을 삼가고 수행과 참선에 증진 할 것을 석가모니께서 계율로 정하니 스님들의 거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스님들이 일정한 거처를 가지게 되었고 인도의 밤리사라 왕이 대나무 숲을 기증하고 그의 아들이 건물지어 줌으로써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竹林精舍)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림정사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사(寺)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에 인도에서 두 명의 스님이 불경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홍려사(鴻廬寺)에 계속 머물게 되므로, 두 스님이 타고 온 흰말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마사(白馬寺)라 고쳐 부르게 된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찰은 당간(幢竿)을 찰(刹)이라고 하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님들이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 그 곳을 선방이라 부릅니다. 1년에 90일씩 두 번 하는데 기간을 안거(安居)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여름에 하는 하안거(음력4월15일~7월15. 3개월)만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동안거(음력10월15일~1월15일. 3개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거(安居)는 스님들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찰의 선방을 다니면서 함으로 나중에 스님들의 이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4가지 사물의 용도

삼라만상의 영혼을 달래주는 이 4가지 물건은 의식이나 법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4가지 물건을 사물이라고 하는데 이곳 범종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종만 있었으나, 법고, 목어, 운판을 모아 놓은 곳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범종

우리 인간과 같이 탯줄을 통하여 태어나(태생) 잘못된 업으로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치는 것입니다.

범종은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친답니다.

*법고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으로 북소리가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듯이 불법의 진로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북은 아무렇게나 그냥 칠까요? 아니지요.

언제나 한문의 마음 심(心)자를 작게 그리며 친답니다.

*목어

모양이 좀 독특하지요? 흔히 용두어신(龍頭魚身)이라 하여 용의 머리에 물고기 몸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습한 곳이나 물속에서 태생한 생명체들을 위해서 치는 공양구로 목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엔 창고에 걸어 놓고 울력을 알릴 때 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탁도 바로 이 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년센스 퀴즈하나 내어 볼게요. 물고기가 잠을 잘 때 눈을 뜰까요? 감을까요? 네 눈을 뜨고 자고, 죽어서도 눈을 뜹니다.

목을 보면서 항상 끝없이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운판

이쪽엔 동판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이것은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허공을 헤매며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 치는 공양구로 운판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면 구름모양 같지요? 예전엔 공양간에 걸어 놓고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썼으며, 구름 속에는 비가 들어 있다 하여 불을 다루는 공양간에 걸어 두고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답니다.

- 탐비의 내용과 고운 최치원선생의 소개

- 탐비에 남긴 민족의 아픈 흔적

지금 여러분께서는 쌍계사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귀중한 문화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문화재나 다름없죠. 국보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탐비는 고승 진감선사 혜소의 높은 도덕과 법력을 앙모하여 대사가 도를 닦은 옥천사를 쌍계사로 고친 뒤 정강왕 때 건립한 것으로 고운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썼으며, 환영스님이 새겼습니다. 탐비에 나있는 상흔들이 보이시죠? 바람과 비, 여러 전쟁들을 거치면서 생겨난 상처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상처는 총탄을 맞아 생기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침략을 받았던 우리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진감선사 탐비에 어떤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으로 구성된 탐비 내용은 1단은 서론으로 당나라 유학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 불교와 유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과 진감선사가 중국에 우리나라 위상을 떨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2단은 진감선사의 출생과 출가, 쌍계사 창건과정, 그의 생애를 나열 하였습니다. 3단은 비문을 쓰게 된 경위와 4단은 위모든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나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최치원선생이 31살 때 쓴 비문 이라고 합니다. 글씨체는 해서체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사산비문이라 해서 4개의 사찰의 비문을 쓴다고 그중 쌍계사가 현존하는 것들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야단법석이란 말의 유래

- 괘불석주와 당간지주의 구별

여러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 들어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가끔씩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돌기둥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큰 법회가 자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법당 안이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여기 괘불석주에 부처님의 탱화 을 걸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3백만명까지도 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얼마나 떠들썩하고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탕화석주가 아니고 괘불석주일까요?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 놓는 탕화를 괘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괴불석주에 나무로 만든 괘불대를 이용해 괴불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당간지주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간지주와는 다릅니다. 당간지주는 사찰의 법회나 기타 행사 등을 알리는 당을 달기 위해 당간을 고정시켜주는 돌기둥을 말하며 크기도 괘불석주 보다는 큼니다. 그리고 용도가 이렇다 보니 위치도 사찰 입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당간지주, 괘불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낮이면 차(茶)를 마시고 밤이면 잠을 잔다.

저기 보이는 녹색 나무가 차(茶)나무입니다. 여기서 차(茶)의 시배지인 만큼 주변 어디를 가거나 차(茶)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녹차가 바로 이 나무의 잎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녹차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잎으로 차(茶)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 따라 녹차, 우롱차, 홍차 등 여러 가지 차(茶)로 불리는 것입니다.

차(茶)의 종류를 나눌 때는 대부분 잎의 발효정도로 나누는데 녹차는 전혀 발효를 시키지 않은 차(茶)를 이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녹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차(茶)하면 자연스럽게 녹차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 등으로 불리며 우전이 가장 좋은 차입니다. 여기서 잠시 차(茶)와 관련된 스님들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진감선사와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감선사께서는 쌍계사를 창건하시고 주변에 차(茶)를 심어 이 사찰을 찾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에게 차(茶) 잎을 환으로 만들어 먹게 했으며, 부처님께 올리는 물은 항상 첫물에 탄 녹차를 올렸다고 합니다. 녹차를 너무나 좋아하여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스님들과 항상 녹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범패를 잘 불렀는데 녹차를 마시고 난 후 범패를 부를 때면 그 목소리가 옥구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신도들 너도, 나도 녹차를 마시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중 노래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녹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님들이 녹차를 마시는 것은 수행과 같다하여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하며 고려시대 이규보는 스님의 품격이 높은 것은 오직 차(茶)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서산대사께서도 “낮이면 차(茶) 마시고 밤이면 잠잔다.”라고 하여 차(茶)를 마시는 것을 스님의 수행에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커피 대신에 차(茶)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

-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양식(기둥, 공포)

보물 제 500호인 이 대웅전은 진감선사가 초창한 이래 임진왜란 때 사찰

이 불에 타 성종스님과 법훈스님이 영조11년(1735년)에 중수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기 현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얘기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하면 대웅전이 없는 사찰도 있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럼 왜 대웅전이 없을 까요?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주불 또는 본존불이라고 하는데 주불이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면 대웅전이라 하고 아미타불을 모시면 아미타전,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이라 하며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을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강원도 월정사의 경우는 적광전이나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다. 원래는 대웅전이었으나 1950년 적광전으로 현판을 고쳐 단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분 부처님을 삼신불이라 부르지만, 많은 사찰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 가면 꼭 대웅전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 혹시 대웅보전이란 쓴 현판을 보신 적 있나요? 대웅전의 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웅전 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저분이 누구실까요? ~네 현판이 대웅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쌍계사는 세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기 중앙계신 분이 주불이신 석가모니불, 좌측에 아미타불, 우측이 약사여래불입니다. 그런데 중앙 위에 지붕이 있고 집모양이 보이시죠? 무엇일까요? ~네 담집이라고 합니다. '담'이란 '따로'라는 옛말로 담집이란 집안에 '따로 지어놓은 또 하나의 집'이라는 뜻 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인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다 보니 너무 더워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산개(일종의 우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

-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양식(기둥, 공포)

처음에는 천을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이나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담집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장인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 쌍계사의 건물 중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안에 절을 하고 계신분이 계시네요. 저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 몸의 다섯 곳이 땅에 닿는 다고 하여 오체투지(五體投地)라고 합니다. 저기 손동작 보이세요. 마지막에 양손바닥을 하늘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받드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절 올리는 방법은 체험을 하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포양식이다, 주심포양식이다, 배흘림 양식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네 저기 기둥위에 예쁜 모양들이 보이시죠? 저 모양들을 공포(拱包)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둥사이에 저 모양이 여러 개 들어 있으면 다포식, 저 모양이 기둥위에 한개만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둥의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네 다포식입니다. 쉽죠? 그런데 익공양식이라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심포식을 간소화 한 것으로 기둥위에 새 날개 모양의 장식 이 된 것을 말 합니다. 쌍계사에서는 명부전이 익공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명부전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둥이 이렇게 배(손으로 배가 나온 모양을 취함)가 나온 것처럼 생겼으면 배흘림, 밑 으로 가면서 안정감을 주기위해 점점 굽어지면 민흘림, 원형의 기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굽기가 같으면 원통기둥이라 하며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양식에서는 이 세 가지 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양식은 원통기둥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감상하시는데 참고 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응전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을 까요? ~네. 1735년에 지었으니까 약 300년쯤 되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약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명은 최고 10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목조건물로 600년이 훨씬 넘는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도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하는데 나무와 흙으로 지은 건물이 600년을 넘기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건축물이 오래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기둥과 함께 그렁이질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형에 맞게 기둥을 세우고 초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진, 풍수해에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백 년은 더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생각 할 때마다 우리선조들의 위대함에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일을 국립공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과 함께 우리문화 지킴이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처님께 올리는 소망의 편지

- 마지막 인사

지금부터 여러분께 편지지 한 장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쌍계사에 올 때마다 부처님께 대신 빌어 드리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자비를 베푸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저와 함께 알아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국립공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역사문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 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궁금한 점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대답 그리고 탐방객의 의견청취)

앞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항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의 주인은 저도 여러분도 아닌 우리의 다음세대입니다.

지리산과 함께한 시간이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설산습지]

안녕하십니까? 맑고 화창한 오늘, 지리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국립공원이 어떤 곳 인지 아시나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을 훼손됨 없이 이용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신선이 내려와서 살았다는 삼신산의 하나로서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 많이 살았다'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하기도 하고, '멀리 백두간이 흘러왔다'라는 뜻으로 두류산(頭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큰스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여 방장산(方丈山)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크고 넓어서 면적이 무려 483km²에 이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483km²라는 넓이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리산의 면적은 146,107,500평이 됩니다. 정말 넓죠?

설산습지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해발고도 750m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산(雪山)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사라진 설산마을에서 따왔습니다.

설산은 히말라야 산맥처럼 일 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만년설을 말하는데 눈 구경 어려운데 여기는 왜 설산이 되었을까요?

고려시대 당시 숭불정책을 펼쳐 스님들의 지위가 아주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의신마을 주변에 수백 개의 암자와 사찰이 세워졌고 스님들이 이 곳에 모여, 그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하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수행하자라는 뜻으로 설산마을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합니다.

무려 30여년 동안 휴경상태로 보존되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과거의 식생이 복원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약 421여종의 동물과 824여종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과 어린 치어들이 상생하고 외부의 공격을 피해 산란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며, 습지는 자연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는 자연적 스펀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설산습지는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풀과 나무가 예쁘다고 함부로 꺾지 말고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탐방로가 잘 되어있지만 돌과 자갈이 많고 경사가 심한 곳이 많이 있으니, 한 눈 팔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판 아래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신발털이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발에 지저분한 먼지를 털라고 있

는 것이 아니고요. 종자털이개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에 혹시 잡초 씨앗이, 특히 왜래 침입종의 씨앗, 돼지풀, 개망초, 달맞이꽃, 서양민들레, 질경이 등등이 신발에 묻혀 습지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자! 차례로 신발을 털고 본격적인 습지탐방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예쁘게 단풍이 드는 나무는 뭘까요? 네 이름 그대로 단풍나무겠죠. 단풍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단풍나무와 당단풍은 모양과 색이 비슷해 구별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잎을 잘 보세요. 손바닥처럼 생긴 나뭇잎의 벌어진 수를 세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뭇잎이 9~11개로 갈라져있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많으면 당단풍 나무고요. 나뭇잎이 5~7개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면 단풍나무입니다. 쉽죠?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가 단풍나무인지 구별해 보세요.

- 느티나무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정자가 있고 그 옆에 항상 커다란 나무들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느티나무가 그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우리와 친숙한 나무이지요. 그래서 별명도 정자나무랍니다.

느티나무의 수피를 잘 보세요. 가로로 갈라져 있는 것이 보이나요? 이런 모양은 왜 생긴 걸까요? 바로 나무가 숨을 쉬는 피목이라는 기관이랍니다.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고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죠? 나무는 잎 뒤에 있는 기공과 줄기에 있는 피목, 그리고 뿌리로도 조금은 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이 산을 많이 다니면 땅이 단단해지면서 나무뿌리가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데요 이것을 두더지, 지렁이 같은 동물들이 땅을 부드럽게 해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옛날에 제기 만들 때도 썼다 합니다. 그래서 기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산수국

꽃을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꽃은 크고 가운데에 있는 꽃은 작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꽃에 진짜 꽃과 가꽃이 있는데 어떤 꽃이 진짜 꽃일까요? 화려하고 크게 피어 있는 가장자리 꽃은 가운데의 볼품없이 작게 피어있는 진짜 꽃이 수정할 수 있도록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한 가짜 꽃입니다. 신기하죠? 이 식물의 이름은 산수국인데 메마른 곳보다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 습지 식물

설산습지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해발고도 750m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담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사람들이 떠난 후 습지화가 되어가며 형성된 습지로서, 약 30년 정도 휴경상태로 보존되면서 자연적 천이를 거쳐 과거의 식생이 복원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지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이들은 먹이 사슬과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정화하는 고마운 고마리를 비롯하여, 꽃이 예쁜 물봉선 등이 있으며, 동물에는 개구리와 도롱뇽, 소금쟁이 등의 개

꽃한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 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 문수조릿대

한국 특산종으로 지리산 왕시루봉 서쪽 골짜기인 문수골에서 채집·발표된 종으로, 그 자생지가 지금은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안쪽이어서 관찰이 쉽지 않았으나, 인근 산등성이에서 제2의 자생지가 확인 되었습니다. 지리산 문수골에 자생하지만 산림보호 과잉으로 활엽수림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음지화가 진행되어 서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 동의나물

동의나물은 미나리아재비과 동의나물속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동의나물의 잎은 곰취랑 비슷하게 생겨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나물에는 독성이 있어 식용을 하면 안됩니다.

▷ 산오이풀

자, 여러분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잎 냄새를 한 번씩 맡아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죠? 오이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름도 산에서 나는 오이 냄새가 나는 풀이라 해서 산오이풀 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 천남성

천남성은 강한 자극이 있어서 생것을 입에 넣으면 입안이 부르트고 목안이 아 립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죄인들에게 벌을 내릴 때 쓰는 방법 중에 사약을 먹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피를 토하며 죽는데 그 약을 만들 때 사용 했던 식물입니다. 봄에는 뿌리는 납작한 구슬줄기이고 그 위에 얇은 인편(鱗片)이 줄기를 감싸 고 윗부분에서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또 가을에는 인편 이 붉은색 알갱 이가 달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 습지의 동물과 수서생물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동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흔적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크고 넓어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으뭉입니다. 2019년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식물 2,086종과 동물 5,416종 등 모두 8,67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삶

누가 배설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배설을 하는 동물은 삶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사진을 준비 하였습니다. 어때요 고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 동물은 삶 또 는 살췍이라고도 하는 동물입니다.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종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고양이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머리쪽을 보면 코끝에서부터 등쪽으로 진한 줄무늬가 보이죠? 두 번 째로 귀 뒤쪽을 보면 흰색 반점이 보이죠? 마지막으로 꼬리를 보면 고양이보다 훨씬

털이 두툽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새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담비

담비는 족제비과 동물로 산림지에서 주로 생활하며 식성은 곤충에서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과 머루, 다래 등의 나무 열매도 즐겨먹고 특히 꿀을 매우 좋아합니다. 족제비과 동물들은 주로 바위 위에 배설을 하는데, 담비 역시 바위위에 배설함으로써 자기 역을 표시합니다.

▷ 멧돼지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해질 무렵 활동을 시작하며 시각에 비해 청각과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 목욕을 하고 소나무 등 침엽수에 몸을 비비는 성질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몸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먹이는 잡식성으로 온갖 것들을 가리지 않고 먹는데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멧돼지들이 민가 부근까지 내려와 고구마, 옥수수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데, 그 이유가 멧돼지는 보통 새끼를 낳을 때 한 번에 8~12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야생에서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나 표범 등의 상위 포식자가 없어 개체수가 갈수록 늘어나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북방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는 개울 옆 흐르지 않는 웅덩이에 알을 낳고 알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산란시기는 주로 3월에 알을 낳지만 5월 초까지도 알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올챙이들은 아주 먹성이 좋아서 식물성이든 죽은 동물이든 뭐든 있으면 먹습니다. 또 먹이가 부족해지면 힘이 약한 동료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물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물속으로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썩을까요? 낙엽이 떨어져 계곡으로 흘러들면 잘 썩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속에는 낙엽을 썩게 하는 곰팡이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계속 쌓여야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흘러나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계곡에는 작은 곤충들이 살고, 곤충들이 그 낙엽들을 다 먹는답니다. 그럼 우리 그 곤충 친구들을 만나 볼까요? (수서생물 : 하루살이, 잠자리 유충, 날도래 유충, 강도래 유충...)

▷ 강도래

어떻게 생겼나요? 재미있게 생겼죠? 지금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강도래입니다. 강도래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팔굽혀 펴기를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꼬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 보이나요? 강도래는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생물입니다.

▷ 날도래

물속 바닥에 있는 모래와 나뭇조각을 엮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머리와 다리만 내밀어 기어 다니고요 바로 날도래입니다. 물속의 나뭇잎이나 나뭇조각 등 부식질을 먹어 치워 물을 맑게 하고 물속에 살며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여 수중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죠. 모래와 나뭇가지 외에도 낙엽으로 멋지게 위장하고 머리와 앞다리만 내놓고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지표생물 활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날도래애벌레나 엽새우, 강도래, 가재는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부를 때 ‘환경지표생물’이라 부릅니다.

- 습지의 기능과 중요성

이렇게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습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습지는 생태적 기능을 합니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우리나라 우포늪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시베리아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에 있기에 철새도래지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철새들이 머물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안정되고 먹이가 풍부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습지는 수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습지는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과 질소 등을 높은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 및 공업용수, 탄광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몇몇 습지 식물들의 경우엔 물 속 중금속의 100,000배 농도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습지는 경제적 기능을 합니다. 초기의 모든 문명은 큰 강 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습지는 사육, 수렵, 어업, 농업 등 인간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수많은 식량과 약초, 어업자원을 인류에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습지는 문화적 기능을 합니다. 농업과 어업 등 지역 전통의 중요한 기원이 되는 습지는 문화 또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멋진 풍경을 제공하거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인간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지는 홍수를 조정하고 토양을 안정화시킵니다. 습지는 홍수 시 많은 물을 저장하여 수위를 낮추어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하류의 위험요인을 줄입니다. 넓은 면적의 갯벌도 홍수량을 조절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여줍니다.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폭풍의 피해로부터 바람과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 피해를 줄여줍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환경문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데도 습지의 역할이 큼니다. 습지의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므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습지 자체가 탄소를 흡수해서 대기 중의 탄소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습지는 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온난화이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습지 자체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지구온난화를 적게나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습지는 자연의 콩밭 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닐까 합

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습지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 했을까요? 사실 과거에 사람들은 습지를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습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간척사업으로 시화호 새만금 방조제 등으로 서울시 면적의 세배가 넘는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900년 이후 지구상 습지의 50%가 사라졌으며, 특히 1950년 이후부터는 습지 상실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습지가 점차 사라지자 유명 환경단체들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으로서의 습지를 보호하는 것이 곧 생태계 보호라는 인식을 가지고 1971년 람사르에 모여 습지 보전을 위해 람사르협약을 만들어서 보호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는 문명이 물가에서 시작했다고 배웠습니다. 물이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습지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습지는 산 위에 있는 연못, 농사짓는 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수지와 도랑, 강가나 해변의 모래사장 등 모두가 습지입니다. 습지는 불모지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습지의 보호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습지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설산습지에서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요? 습지라 하면 우포늪이나 순천만 습지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지리산 750m 높이에도 습지가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설산습지는 계절마다 구경하는 즐거움이 쏙쏙합니다. 풀들이 우거져 푸릇푸릇한 봄의 습지도 좋고 풀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여름과 가을의 습지도 좋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이런 멋진 풍광을 즐기실 수 있으니 설산습지로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신 분들만큼 설산습지를 널리널리 알려주시고, 습지 보호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달가슴곰 생태 학습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이곳은 의신마을에 있는 반달가슴곰의 생태 학습장입니다. 신(神)이 머물고 갔다고 할 정도로 경치가 수려한 마을 의신마을은 의신사가 있던 자리에 형성된 마을인데요, 임진왜란 때 전란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형성된 마을인데, 의신사는 신라때 건립된 사찰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전란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서산대사의 출가지로 알려진 원통암은 의신사의 암자로 대성골 방향에 이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복원되었는데, 이곳에 올라가 굽이굽이 펼쳐진 산 능선을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시간과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따로 챙겨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산지인 의신사, 서산대사가 출가한 원통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지리산역사관을 비롯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생태학습장에 이르기까지 의신 마을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실 곳은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데크이고,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님들은 어린이들이 보호 울타리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안내원의 지시에도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반달가슴곰이 귀엽다고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호자나 인솔자에게 관찰데크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게 또 한번 당부한다.)

올라오니 어떠세요? 반달가슴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죠? 이곳은 총면적은 400평 정도이고, 반달가슴곰을 조금이나마 자연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조성된 곳이며 시설물로는 반달가슴곰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육사 2동과 자유로이 수영 및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펜스주변에는 전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라 해서 위험하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에게 경계의 의미만 부여해주는 충격만 주는 것이니 곰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여기 반달가슴곰 학습장인 베어빌리지에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곰 산이와 딸 강이입니다. 나무위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 곰이 딸 강이이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곰이 엄마 산이입니다. (곰 행동 및 사항에 맞게 반달가슴곰의 이름을 설명)

산이 강이는 2014년 14살 9살의 나이로 이곳에 왔습니다. 산이는 예전 이름은 막내입니다. 2001년, 장군, 반돌, 반순, 막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하여 과연 어린반달가슴곰이 어미곰 없이 홀로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곰이었습니다. 그중 막내라는 이름의 산이는 자연적응 훈련 중에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를 치료하는 도중에 사람들과 친숙하게 되어 방사한 지 두 달 만에 결국 탐방객을 따라 다니는 바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곰인 반순이는 그해 겨울에 자연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싸늘한 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지요. 언론이나 사람들은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살수가 없다고 앞 다투어 말을 했지만 남은 곰인 장군과 반돌이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겨울잠도 3번이나 나무굴과 바위굴을 찾아내며 적응을 잘하여 살아남았고 국립공원의 복원사업으로 인해 현재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은 약 69마리가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큰 특징은 앞에 보이는 산이 강이 보면 앞가슴에 V모양의 흰색 무늬가 보이시죠? 가슴에 반달모양 흰 털이 나 있어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이 반달모양 흰 털은 곰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목 주변에 긴 털의 갈기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보면 다섯 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도 보이시죠? 저 발톱을 이용하여 나무와 바위 절벽도 잘 기어오른답니다. 반달가슴곰은 생후 만 4년이 되어야 번식이 가능하며 6~8월에 짝짓기를 하지만 수

정란이 암컷의 자궁 내에서 떠돌다가 동면 직전 에야 자궁벽에 착상되는 '착상지연' 현상을 보입니다. 착상여부는 가을 암컷의 몸상태(영양, 환경, 스트레스 등)에 따라 결정되며 첫눈이 내리고 추워지면 겨울잠에 들어가고 이때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배설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도 줄이기 위해 거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주먹만한 크기인 약300g 정도의 아주 작은 새끼를 낳죠. 반달가슴곰은 단독생활을 하지만, 새끼곰은 어미곰과 약 16~9개월 동안 함께 생활합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위에 상사리라는 등지를 만들어 쉬거나 조릿대를 이용한 곰탱이(곰의 잠자리. 풀을 말아서 방석처럼 만들어 놓은 곳)를 만들어 쉬기도 합니다. 혹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탱이 위에서 자고 있는 곰의 모습을 보고 곰을 게으르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곰은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질문에 응답을 받고 재치 있게 답해준다.) 그렇죠. 그 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곰이라면 흰색털로 둘러진 북극곰이 있고, 곰들이 푸우로 잘 알려진 곰은 불곰이 있습니다. 그 밖에 흑곰, 안경곰, 늘보곰, 말레이곰, 펜더곰,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그 중 반달가슴곰은 포유강 식육목 곰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원래 육식을 했던 동물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잡식으로 바뀌었지요. 앞서 말한 장군과 반돌이가 지리산에 돌아다니면서 반달가슴곰에 해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그 중 반달가슴곰이 주로 먹는 먹이가 무엇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먹는 것이 부드러운 나뭇잎과 꽃, 나뭇줄기를 먹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여름에는 주로 저지대에서 덜 익은 열매를 먹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딸기, 뽕나무 열매인 오디, 뽕나무 열매, 머루 다래 등 이 모든 것이 반달가슴곰의 먹이 들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식욕이 왕성하고 겨울철 동면을 위해 많은 양의 먹이를 먹기 위해 도토리가 열리는 신갈나무 등을 찾아 주로 고지대에서 활동하여 도토리 밤을 많이 먹습니다.

지리산하면 '반달가슴곰'을 떠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 왜 반달가슴곰을 복원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하던 반달가슴곰이 사라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때문입니다. 해수구제란 일제식민시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반달가슴곰, 호랑이 등을 포함해 총 7만여 마리 동물을 살생한 것을 말합니다. 1942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1918년 <조선휘보> 8월호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해수구제'로 희생된 반달가슴곰 수는 1039마리라고 나온답니다. 그 뒤 반달가슴곰은 보이질 않고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2000년 여기 의신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진주mbc에서 의신마을 뒷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해보니 진짜 반달가슴곰이 있었고 확인결과 약 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에

국립공원은 2004년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지리산이었을까요? 지리산이 왜 복원 대상이었을까요? 지리산은 기존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었고 안전하고 넓은 서식공간, 풍부한 먹이자원, 충분하고 우수한 서식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람에 의한 밀렵, 서식지파괴 등 인위적 영향을 배제 시킨다면 반달가슴곰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서식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야생 동·식물 보호와 생태계복원, 공원자원보전, 탐방객 안전관리 등 공원 관리 업무가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복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산에서 곰을 만난다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있으니 혹시 산에 가다 곰을 만나면 어떡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지정된 탐방로만 다닌다면 사실 곰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답니다.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지역은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편안한 서식처이므로, 이들의 서식공간에 침입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 인거죠. 그리고 배낭에 금속성의 종 또는 방울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가야합니다. 곰은 청각, 후각 등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어 사람과 마주치기 전 자리를 피합니다. 따라서 소리 나는 방울, 종 등을 배낭에 달고 다니면, 곰과 갑자기 마주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곰과 마주쳤다면 곰이 먼 곳에 있다면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곰이 자기보다 더 큰 동물이라고 생각해 접근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곰과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으면 곰이 자극받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천천히 뒷걸음질 해야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을 때 재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시속 50Km로 사람보다 빠르며 곰은 바로 뒷모습을 보이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로 여겨 쫓아옵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라도 곰이 공격을 하는데 피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항해야 하며 급소를 보호하듯 동그랗게 몸을 마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요

이렇게 위험한데 곰은 왜 복원했을까요? 만약 곰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곰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곰이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곰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도 모르고 자연 생태계는 변화할 것입니다.

반달가슴곰은 코끼리 같이 덩치는 크지만 주로 채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은 나무 열매를 엄청난 양의 배설물을 통해 종자로 내보낸답니다. 이러한 곰의 생리 현상이 지리산 생태계에 다양한 종을 서식할 수 있게 돕는 것을 우산종이라고 합니다. 우산종이란 우산을 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비를 피하듯, 한 종을 보존해서 다른 종들까지 같이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 특정한 종을 말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될 수 있으면서 예를 들면 반달

가슴곰을 보호하려고 지리산 일대를 보존지구로 설정하면 소화율 30%인 반달가슴곰이 왕성한 먹이활동과 배설로 뿌린 씨앗의 발아율이 높아져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이야기는 어땠나요? 반달가슴곰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훼손은 1년, 복원은 100년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파괴된 자연생태계가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복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이 하는 건 복원사업이고 진정한 복원은 저희가 복원시킨 반달가슴곰이 자연으로 돌아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신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연은 나의 것으로 소중히 생각하면서 누구나가 와서 느낄 수 있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